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03. Vol 233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봄편지

봄이 오면, 오래 움츠렸던 마음이어
산에 들에 아질아질 현기증 이는 봄이 오면
편지라도 한 장 쓰자. 한 글자씩 또박또박
지워지지 않는 손편지를 쓰자.

목련같이 진달래같이 개나리같이
희고 붉고 노란 편지지를 펼쳐놓고
버들잎 펜촉으로 쑥빛 잉크를 찍어 쓰자.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이야기에 덧붙여
그러나 너를 잊지 않아서 그 흑독함을 견디었노라 쓰고
누구나 하나쯤 깊이 넣어둔 씨앗 같은
희망을 꺼내어 닦고 있노라 쓰고
이젠 기다리지 않고 마중을 나가겠노라 쓰자.

아버지 같은 느티나무에게 쓰고
형님 같은 굴참나무에게 쓰고
조팝나무, 민들레, 냉이꽃, 채송화 동생들에게 쓰고
심지(心志)가 쉬 약해지는 나에게도 쓰자.

팔랑거리는 나비 편에
붕붕거리는 꿀벌 편에
줄줄 흐르는 시냇물 편에
느릿느릿 떠가는 흰구름 편에

마음이어, 올봄엔
꼭 손편지 한 장씩 써서 부치자.



류정환

- 충북 보은 출생
- 〈현대시학〉으로 등단
- 한국작가회의 회원
- 시집 《검은 밥에 관한 고백》, 《상처를 만지다》 외

충북의정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2015. 03. Vol 233

Contents



단양 소백산 철쭉
봄을 일깨워 주고 만끽시켜주는 봄
의 상징! 그 모습에 새로운 희망과
진정한 사랑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철쭉, 봄, 희망, 사랑...

- 04 | 제337회 임시회 주요내용
- 06 | 2015년도 도정 및 교육 시책
- 08 | 건의문 -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
- 10 | 전체의원 연찬회
- 11 | 의정참여단 위촉 · 공청회
- 12 | 사랑의 연탄기부 · 나눔실천
- 14 | 상임위원회 활동
- 20 | 제337회 임시회 주요처리의안
- 22 | 대집행부 질문 · 답변
- 24 | 5분 자유발언
- 26 | 의정활동 이모저모
- 28 | 건강상식
- 29 | 세무상식
- 30 | 의원논단

- 발행일 2015. 3.
-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언구
- 발행처 충청북도의회
- 주 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전 화 (043) 220-5123
- F A X (043) 220-5119
- 홈페이지 <http://assem.cb21.net>
- 구독신청 「충북의정」 구독을 희망하시는 도민께서는 상기의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도교육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충북경제 4%달성 및 도민소득 4만불 진입에 최선 당부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요구”

충청북도의회는 2015년도 첫 임시회를 열고 ‘충북경제 4% 달성과 도민소득 4만 불 시대’ 진입을 위해 행불유경(行不由徑)의 정신으로 모든 의정역량을 결집하고 의회차원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10일간 제337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문」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반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충청북도 중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 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육성산업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1월 27일 개최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3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 실현을 위한 충북경제 4% 도약 기반구축 등 6가지 주요 역점시책을 제시했고,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은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 등 5가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또한 윤홍창 의원과 김학철 의원이 대집행부질문을 실시해 ‘MRO사업 추진 및 시책추진보전금 집행’에 관련된 사항과 ‘도시가스 및 대중 교통 요금, 청주에 어로폴리스 MRO산업 유치, 충주의료원 재정여건 및 청렴도 평가’에 관련된 사항 등 주요 도정 사업과 현안에 대해 각각 날카롭게 지적하고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병진 의원은 (구)영동소방서 재양여와 관련해 ‘영동군에서 충북도로 양여된 (구)영동소방서 건물 및 부지에 대한 재양여의 필요





충청북도의회는 1월27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고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주요현안을 처리했다.

성」을 제기했고, 박우양 의원은 ‘창조적 광역발전을 위한 삼도봉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 이숙애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조치 근본적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1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소관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간담회와 현지 확인을 통해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심사·의결했다.

2월 5일 실시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 및 소

비문화 장려 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강현삼 의원과 이양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적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인사정책’ 시행에 대한 요구와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해 농다리를 포함한 초평호 관광단지를 개발할 것’ 등을 각각 요구했다.

이언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충북은 수도권 규제완화, 호남고속철도 서대전 경유 등 난제에 봉착해 있는 시기로 도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377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영충호 시대의 리더 충북건설” 실현에 역점

사즉생충(四卽生忠)의 각오로 충북경제 4%달성 역량 집중

충청북도는 민선6기가 시작되는 2015년도를 「충북경제 전국대비 4%대 실현」과 「도민행복시대」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가는 첫해로 삼았다.

또 도정의 핵심 키워드를 ‘경제’에 두고 사즉생충(四卽生忠), 즉 충북경제 4%만이 충북을 살린다는 비장한 각오로 충북경제 전국대비 4%달성에 도정역량을 집중해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으로 우뚝 서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같은 기틀 마련을 위해 충북경제 4%도약 기반 구축, 출산에서 노후까지 행복한 감동복지, 청주권·비청주권 균형발전 실현,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 신명나는 문화체육관광인프라 확충, 도민 중심의 안전·소통 도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충청북도는 ‘영충호시대의 리더 충북’ 건설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한다.

- ▲ 전국대비 충북경제 4%대 도약을 위해 오송첨복단지 신약·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착수, 중·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시험인증평가센터·기후환경실증센터·자동차 연비센터 착공, 경제자유구역 중 오송바이오 융복합산업지구 2016년까지 단지조성 공사 마무리 등
- ▲ 출산에서 노후까지 모두가 행복한 감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초고령사회 대비, 9988행복 나누미 사업 확대, 노인 일자리창출 기업인증제, 충북미래여성플라자 완공,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와 야간보육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등
- ▲ 충청내륙고속화도로·제천~평창간 국지도·안동~충북~세종시간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청주~제천~서울~청주간 순환철도망 조기 완공,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영동~보은구간 착공, 영동~단양간 충북종단 열차 확대운행 등



- 충북경제 4% 도약기반 구축
-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농업 육성
- 출산에서 노후까지 행복한 감동복지
- 신명나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 청주권·비청주권 균형발전 실현
- 도민 중심의 안전·소통·도정 구현

- ▲ 고품질·고부가가치 수출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괴산 유기농업연구센터와 청주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준공, 청주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 괴산 버섯랜드, 옥천 묘목유통단지 및 영동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등
- ▲ 신명나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세종대왕 초청 르네상스’ 조성, 배티 등 성지순례코스 개발, 법주사 다목적 문화교육관 건립 추진, 청주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제천 스토리창작 클러스터 조성, 충주종합경기장 등 도내 29개 경기장 현대화 등
- ▲ 도민 중심의 안전·소통도정 구현을 위한 소방인력·장비 대폭 확충, 통합청주시 소방서 증설·단양소방서 신설 추진,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북부·남부출장소 기능 강화, 각급 기관 및 사회·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다.

통해 본 2015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한 20개 과제 추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충북교육의 밑그림을 그린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5년도 충북교육의 중점 추진 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5대 교육시책, 20개 추진과제, 110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5대 교육시책 추진은 다음과 같다.

- ▲ 참여·소통·협력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교권보호 강화,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 교육공동체 기반 조성,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현장지원 중심의 선진감사 행정,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 학교직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등 33개 사업 추진
- ▲ 학교혁신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기초학력향상 지원, 교실수업 역량 강화, 배움과 성장중심의 평가,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 행복씨앗학교 운영,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진로·직업교육 강화, 창의적인 과학·정보교육, 고등학교 입학 전형 개선 등 29개 사업 추진
- ▲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지향을 위해 문화예술 체험활동, 인문학적 소양 함양, 독서교육 활성화, 정체성 확립 교육,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교체육 내실화, 보건교육, 학생 건강관리 강화, 학교급식 운영 등 14개 사업 추진
- ▲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복지확대를 위해 학부모부담 공교육비 지원(학습준비물비,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경비, 교복비 등), 학교급식 지원 확대, 유아학비 지원, 특수교육 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 작은 학교 살리기, 평생교육 지원 등 19개 사업 추진
- ▲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평화로운 심성함양 교육, 체험중심 안전교육, 교육시



중점
사항

행복씨앗
학교 운영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

수업과생활지도
중심의학교운영

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안전한 먹거리 제공, 생태 이해 교육, 초록학교 운영,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환경친화적인 학교 조성 등 15개 사업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3대 중점사업도 행하기로 했다.

- ▲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위해 행복씨앗학교 10교, 준비교 21교를 지정·운영하여 즐거운 배움, 창의적 교육이 일어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학교 제시
- ▲ 행복을 여는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교육 선도학교와 시범학교 운영, 진로캠프와 진로체험실 운영,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등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체험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학교업무경감 협의체 구성,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원들이 교수학습 활동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다.

호남선 고속철도는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면 안 된다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 반드시 고려할 것 요구

충청북도의회는 1월 27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호남선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등 관계 기관에 보내며 도의회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도의회가 이같이 나서게 된 것은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되도록 정부에서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대전시의 요구에 따라 서대전역을 우회해 운행한다면 오송

역 유치에 전력투구했던 충북권은 물론 천안·아산역 분기에서 오송역으로 양보했던 호남권에도 엄청난 좌절과 분노만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호남선 고속철도 KTX가 서대전역 경유로 인해 45분이 더 지체되게 되면 시간적·효율적 측면에서 초고속 열차가 아닌 일반열차와 별 다를 바 없는 저속철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호남고속철도는 2005년부터 시작해 8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되는 국가사업임을 강조하고 저속철이 아닌 초고속철로망 구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문 ●

2005년 호남고속철도 계획 수립 시 호남권은 천안·아산역 분기를 원했으나 정부의 오송역 분기를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고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1단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대전시의 요구에 따라 서대전역을 우회하여 운행한다면 오송역 유치에 전력투구했던 충북권은 물론, 천안·아산역 분기에서 오송역으로 양보했던 호남권에도 엄청난 좌절과 분노만 살 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북의 오송, 그리고 오송역을 분기점으로 하는 호남고속철도의 개통은 지역발전의 호재와 함께 수도권-충북권-호남권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묶어줄 수 있는 혁신적인 기회입니다.

고속철도 KTX가 서대전역을 경유해 호남권으로 향하게 되면 45분의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시간적,

효율적 측면에서 초고속 열차가 아닌 일반열차와 별 다를 바 없는 저속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호남고속철도는 2005년부터 시작해 8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사업으로 저속철이 아닌 초고속철로망 구축을 통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충북도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5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요구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원칙 지켜야

충북도의회가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도의회가 이번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도의회는 제안 설명에서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기반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

다는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건의문에서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역경제의 공동화 현상은 가속될 것이며 중국에는 수도권·비수도권의 동반 쇠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공기업의 지방 이전 등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과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회의에서 논의된 수도권 유턴 기업의 재정 지원 등 4건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문 ●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지역 경제의 육성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정부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친 투자·경제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 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결되는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합리화”라는 대 국민 약속을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의 50%,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밀집해 있어 경제적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한 바 수도권 규제마저 풀리게 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우선 수립·추진할 것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 4건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15년 1월 2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확 달라진 2015년 첫 전체의원 연찬회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응방안 논의



충청북도의회는 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직무연찬을 실시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현실적인 직무연찬을 실시했다.



▲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시찰



▲ 단양소방서 신축예정 부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확인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가 2015년도 첫 전체의원 연찬회를 2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했다.

도정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의정능력을 제고하고 의원 상호간 화합 및 소통을 증진하고자 마련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청주공항, 단양 소방서 신축예정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현안과 관련된 현장위주의 점검과 연찬을 실시했다.

또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관련 추진상황과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 현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첫째 날에는 오송역 광장에서 열린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도민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도민과 뜻을 함께하며 지역발전의 선봉에 서기로 다짐했다.

이언구 의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저지 등 지역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할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의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연찬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원들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정참여단 위촉, 도민참여·소통 강화 나서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 의정활동에 반영



충청북도의회는 2월 2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의정참여단 위촉식을 갖고 도민참여 및 소통강화에 나섰다.

충청북도의회는 2월 2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29명을 선정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의정참여단 위촉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도정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1월 5일부터 공개모집과 사회단체 및 시·군의 추천을 통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도민들을 위촉해 의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정책의견 제출과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하기 위해 위촉했다.

도의회는 또 의정참여단이 단순 의정활동 참여를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을 제시하며 도민들과의 소통채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의정참여단 스스로의 활동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시간을 가졌다.

이언구 의장은 “의정참여단의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역량을 모아 화합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참여단은 의정활동에 대한 개선, 조례,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각 상임위원회의 검토와 집행부 협의 등을 통해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할 방침이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 공청회

시민단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



교육위원회는 1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1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

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내 학생들의 정보화교육 진흥 촉진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에는 각계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해 정보통신 활용 능력 향상법,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 함양, 정보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법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홍창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교육위원회 도의원, 정상호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안효태 도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장학관, 장연수 문광초등학교 교사, 황연정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 소장, 진근영 충청북도 청소년진흥원 상담복지센터 팀장, 엄경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국장, 도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직원, 정보화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사랑의 연탄기부·배달하며 나눔실천

도의회,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연탄 14,000장 기탁



충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실에서 도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모금하여 연탄 14,000장을 (사)징검다리 임동현 대표에게 전달했다.

충청북도의회가 도내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성금을 모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따뜻한 정을 사랑의 정을 나누었다.

충북도의회는 1월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동절기를 맞아 도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모금한 7백만 원의 후원금으로 연탄 14,000장을 구입해 (사)징검다리 임동현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날 열린 기탁식에는 이언구 의장, 박종규 부의

장, 박한범 운영위원장, 임병운·최병윤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과 (사)징검다리 임동현 대표 등 징검다리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기탁된 연탄은 도의회와 (사)징검다리가 함께 14일부터 청주시와 영동군을 시작으로 충북도내 11개 시·군의 저소득층 홀로노인 가구와 소외된 불우이웃 등에게 전달되었다.

이언구 의장은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

이 있듯이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성금뿐만 아니라 연탄 나르기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귀한 봉사”라며, “시·군별로 연탄 나르기 행사에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직원 모두가 참여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실천 봉사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주



괴산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단양



제천



음성



충주



의회운영위원회
제337회 임시회

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의회운영위원회는 1월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조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한범 의원)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1월 27일 실시된 의회사무처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강호동 의회사무처장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운영 △의정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적 의회 구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홍보 △의정활동 지원 역량증진 및 사기진작 등의 중점 추진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안 과제로는 도의회 청사를 도청 인근에 건립해 도의회의 기능 확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표성을 상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청사건립 T/F팀을 구성·추진 중이며 향후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공청회를 거쳐 2016년 착공해 2018년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5년은 제10대 의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해인

만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각 분야별로 추진동력을 가속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생산적·창의적인 의회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제33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개최하기로 확정하여 의안심사 및 당면업무 협의, 주요사업 현장 방문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실·국이 경제통상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산업경제위원회로 조정하고 신설기구인 ‘미래전략기획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책복지위원회로 결정하며 ‘청주청원통합추진지원단’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의 소관 사무에서 삭제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책복지위원회

제337회 임시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 요구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봉순)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소관 12개 기관 및 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1월 28일에는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충북발전연구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 주차장 확보대책과 여성재단 설립에 따른 철저한 사전분석, 지역개발기금 용자사업의 규모 확대방안, 충북발전연구원의 질 높은 수탁과제 확보노력 등을 주문했다.

1월 29일 실시한 보건복지국, 청주의료원 등 직속기관과 출연기관의 업무보고에서는 전국 최초로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9988행복나눔미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대책마련, 사할린 교포 거주자에 대한 문화적 혜택 지원 방안과 청주의료원 재활전문병동 전 병상 가동으로 재활전문센터 구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1월 30일에는 미래전략기획단, 충북도립대학, 충주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금년 1월 1일자로 설치된 미래전략추진단의 전국대비 4% 경제실현 기반 구축의 선봉장 역할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특성화 전문대학육성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도립대는 재선정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바이오생명의학과 오송 이전에 따른 대책 마련, 충주의료원 접근성 문제와 경영 적자 등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반발하는 전국 비수도권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월 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추진 할 것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 4건을 즉각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1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있다.

행정문화위원회

제337회 임시회

체육회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추진



행정문화위원회는 1월 28일 충청북도체육회를 방문해 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희무)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공보관, 감사관,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등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충청북도체육회를 방문해 3개 체육회에 대한 주요현황을 보고 받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재창 의원은 도민교육과정 중 농기계 교육과 관련해 '앞으로의 교육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배우는 방식을 뛰어넘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부·남부권역과 같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은 도민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영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 '충북 대표도서관 지정·운영을 준비함에 있어 조직관리 부서와 협조해 팀 단위의 인력확보를 통해 도서관 시책수립·시행을 지원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대표도서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철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 '각종 체육시설 중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체육시설 개보수에 장애인 시설이 먼저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윤은희 의원은 충북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 '문화재단 이사회 개최에 따른 안건의 수정이나 부결이 한건도 없다는 것은 회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이사회 개최 시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 되고 효과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운영 방식을 개선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최광옥 의원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 '충북 발전을 위해 모든 실과들이 변화해야겠지만 충북을 알리는 일을 하는 공보관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도내 홍보보다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337회 임시회

충북경제 4% 조기실현에 만전 당부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양섭)는 제337회 임시회 중 창조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충북도가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4% 경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1월 27일 위원회는 경제통상국과 경제자유구역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경상남도 간 MOU체결에 충청북도의 단일한 업무 추진을 지적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MRO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할 것, 수도권 규제완화가 충북경제 4%실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이어, 28일 농정국 업무보고를 통해 작년 12월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를 위해 방역, 사후관리,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할 것과 각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지역농민에게 보급해 농가소득으로 이어 질 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 등을 주문했다.

또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을엑스포 조직위원회에는 오는 9월 개최되는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충

북도가 전국 제일의 유기농특화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신사업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을 각각 주문했다.

위원회는 또 박우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은 전통주 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 가치를 증진, 도내 농산물 판로 개척,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제정됐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원의 부장 직위가 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

또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의 에코폴리스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월 3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
제337회 임시회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촉구



건설소방위원회는 1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균형건설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병진)는 제337회 임시회 기간 중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채택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1월 27일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1월 28일 실시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로 인한 도내 공인중개사의 자부심 저하 등을 지적하고 중개사의 입장과 충청북도의 현황을 감안해 상한율 조정과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인하 문제에 대한 충청북도의 발 빠른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TBN 충북교통방송국이 조속히 충북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요청했다. 또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공

사가 사업계획 수립 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공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9일 실시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서는 글로벌 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운영권 문제, 오송역세권 추진, 당노 바이오밸리 구축과 관련한 언론내용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제천왕암폐기물처리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질의하며 후일 침출수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또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를 방문해 충북도민의 안전 운행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도로보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동절기와 해빙기의 안전한 도로관리로 도민은 물론 충북을 방문하는 각종 방문객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박병진 위원장과 강현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현재 충청북도 소유인 (구)영동소방서 부지의 영동군 제양여 할 것'과 인사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청문회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각각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제337회 임시회

따뜻한 품성 넘치는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 요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는 제33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계획 추진으로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이 넘쳐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2015년도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교육지표와 근본취지에 부합한 것인지를 묻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를 심도 있게 질의하며 교육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한 계획으로 충청북도 교육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이숙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 및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정보화교육 관계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는 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통신 활용 능력 습득과 바른 가치관 및 윤리의식 함양을 통하여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정보화교육 진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화교육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위원회」와 정보화 교육 전담부서 설치, 각 교육지원청별로 정보화교육 중점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기본계획에 정보격차 해소 방안 내용 포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명시」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3월 중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1월 2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현장중심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의 건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주요내용〕

-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충청북도지사 ·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미래전략기획단”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로 조정 등

충청북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광욱 의원)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및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을 반영
-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 등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감면비율 단서조항 신설
- 수수료의 100분의 50 경감
-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를 개정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의영 의원)

〔제안이유〕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직위 개정

〔주요내용〕

- ‘연구개발부장’ ⇒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부장’ ⇒ ‘기술지원국장’으로 개정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14. 8. 12)에 따라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현행 조례에 신설

〔주요내용〕

-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방법 신설
- 부과대상 지역 규정 등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관의 등급 조정(1개 기관)

기관명	구분	등급	시·군	구읍·면·동·리
충청북도교직원 복지회관	변경 전	라	충주시	종민동
	변경 후		“제외”	

- 학교 폐지(1개 학교) 등

기관명	등급	시·군	폐지년월일	폐지사유
단산고등학교	라	단양군	2015. 3. 1.	학생수 감소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대표발의: 박우양 의원)

〔제안이유〕

- 지역 전통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

〔주요내용〕

-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역 전통주 활성화에 노력
-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협력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황규철 의원)

〔제안이유〕

- 2015년 1월 1일자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직위 및 부서명을 개정

〔주요내용〕

- '기술지원부장' ⇒ '기술지원국장', '농산지원과장' ⇒ '유기농산과장' 으로 개정

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개발을 위하여,
- 충청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회사 명칭 및 사업
- 출자의 방법 및 한도 등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기구 삭제

〔주요내용〕

- 한시기구 중 존속기한(2015. 2. 28.까지)이 도래한 방과후 학교지원단을 삭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조정 범위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 등을 정비

〔주요내용〕

- 하급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지역교육청' 에서 '교육지원청' 으로 변경
-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 등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책정된 한시정원을 삭제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 개정: 방과후학교지원단 행정 4급△1(안 별표 4)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제안자: 정책복지위원장)

〔제안이유〕

-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바,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안
(제안자: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이유〕

- 우리 충북권과 호남권의 오랜 소망과 염원이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서대전역 경유에 대한 재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오송역을 분기역으로 하는 원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미진한 MRO유치 추진사업 집중 추궁

윤홍창 의원
(교 육 위 원 회)



규모 및 고용창출 관련

- 질문** | 지난해 국내 항공정비 산업은 군수·민수를 포함해 어느 정도의 시장규모와 고용창출효과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정확한 자료는 안나와있지만 2조 5천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 김학철 의원님이 지난 12월 9일 본회의 때 카이와 경남도의 MOU체결을 강하게 우려하며 충청북도가 뒤 통수를 맞았다고 질책 했는데 그때 지사님께서 어떻게 답변 하셨는지요?
- 답변** |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만 지난 8월 카이와 MOA체결이 무산되며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질문** | 경남 사천진주에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국내 최대 완제기 제조업체인 카이가 사천으로 가게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답변** | 네, 알고 있습니다.

MOR 유치 노력 관련

- 질문** | 지사님께서 충북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고 또 무슨 이유로 불과 며칠 뒤 일어날 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카이는 MRO 전문기업체가 아니고 항공기 제작회사이며 항공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카이는 카이대로 접촉해보고 다른 기업체도 접촉을 해봤습니다.
- 질문** | 지사님과 경자청, 유치 팀들이 카이의 심장부 즉 카이의 집행부나 하성용 대표를 전혀 설득하지도 못했고, 소통과 교감도 부족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2010년도 1월에 카이와 2년간 유효한 MOU 체결 후 2년이 지났고 카이가 단독으로 MRO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012년부터 에어아시아를 비롯한 독일, 일본 등의 항공업체와 접촉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노력했습니다.
- 질문** | 그렇다면, 경상남도 홍준표지사 취임 후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진주사천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알고 계셨습니까?

- 답변** | 네, 알았습니다.
- 질문** | 상대가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움직이며 전략적으로 대응했는데 우리는 전략적으로 대응한 게 없습니다. 카이를 유치하기 위해 지사님 단독으로 하성용 대표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 답변** | 전에 김홍경 사장은 몇 번 만났고, 하성용 사장은 통화만 한번 했습니다.
- 질문** | 이승훈 청주시장과는 MRO의 성공유치를 위해 회의 석상이나 행사장 외에 심도 있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 답변** |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북은 MRO를 추진한 것이지 카이와의 MOU체결이 목적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국내 항공사인 아시아나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MRO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나와 MOU체결 관련

- 질문** | 그럼 아시아나는 청주에 확실히 오는 것입니까?
- 답변** | 온다는 것은 아니고 MOU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를 비롯한 일본의 자력이나 저가항공사들을 끌어들이어 MRO단지가 잘 추진되면 카이도 올 수 있도록 다시 접촉을 시도하겠습니다.
- 질문** | 경남 홍준표 지사가 충북을 제치고 카이를 유치하게 된 사유에 대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 | 도의회 회의장에서 경남도와 경남 도지사에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 며칠 전 아시아나와 MOU를 체결했는데 어떤 내용이며 아시아나와 MOU를 체결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하시면 지난 카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를 반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각오로 뛰고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이미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며 카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MRO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인하 및 충주의료원 안전대책 요구

김학철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대중교통 요금 관련

질문 | 청주와 충주 간 노선의 길이가 대략 70km 정도인 반면 충주와 서울 구간은 대략 110km 정도인데 거리상 충주~서울 노선이 충주~청주 노선에 비해 30~40km 정도 거리가 먼데 충주~청주 간 시외버스 요금이 충주~서울 간 고속버스 요금보다도 1,000원 더 비싼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시외버스의 경우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시 요율(일반국도 116원/Km, 고속도로 62원/Km)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고속도로를 경유해 신설됐기 때문에 향후 버스운행노선을 버스사업체·버스운송조합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질문 | 국도 여건이 개선이 많이 되었기에 고속도로와 무려 2배 가량 차이나는 이 요율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국토부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노력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그리하겠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MRO사업 관련

질문 | 한 달 전에 아무 걱정 없었으니까 걱정 마시라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단 2주도 지나지 않아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경남 사천하고 손을 잡았다. 수차례 안심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점 사과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답변 | MRO가 최종적으로 잘 안됐을 경우에는 열 번이라도 사과하겠지만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질문 | 이 상황은 여우가 맛있는 포도를 따 먹기 위해 갇혀있다가 결국 안되니 저 포도는 시어서 못 먹는 포도다 하고 돌아선 경우와 같습니다.

답변 | 그건 전혀 아니라 생각합니다.

충주의료원 청렴도 및 재정여건 관련

질문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평가

를 실시한 결과 불명예스럽게도 충청북도지사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충주의료원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이에 대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 2012년 5월에 충주의료원 신축 후 건축경영을 위해 직원들의 수당, 임금 인상 등을 최소화 시켰고 여러 가지 인증 준비에 강도 높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2012년 충주의료원 소속 일부 의사들이 의료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되어 권고사직 등 징계조치가 공개된게 그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 청렴도평가 악화 이유에 대한 인식이 본 의원과 차이가 있다. 충주의료원은 3가지 분야 전부 다 하위권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지사께서 국회의원시 비서관 출신 인사를 충주의료원 기획홍보부장, 마취통증의학을 전공하신 고등학교 옛 친구를 충주의료원 원장에 임명하면서부터 충주의료원이 급격하게 재정상황이 마이너스로 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 원장은 경영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면서 의료장비, 기숙사 신축 등에 1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12~'13년에 14억, 13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감가상각을 제외하면 2013년에 약 25억 원 정도 흑자를 내었습니다.

질문 | 충주의료원은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진입이 불편하고, 산사태 우려가 있음은 물론 비상 출입로가 없어 응급환자 발생 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 현재 도의 재정 여건상 진출입로를 두 개씩 만드는 데는 아직 무리라고 생각되고, 향후 재정 여건에 따라 재검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원칙과 신뢰 존중하는 충북도가 되어야

1994년 영동군민들은 구 영동소방서 부지와 건물을 충북도에 양여했습니다.

이는 안전충북을 염원하는 통 큰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동군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무시한 채 반환을 거부하는 충청북도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994년 7월 12일 영동군과 충북도는 구 영동소방서 양

여계약 체결 시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는 본 계약 취소와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현재 영동소방서는 2008년 1월 영동을 매천리에 신축해 이전했고 구 영동소방서는 2011년 4월 용도 폐지하여 당초의 양여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8년째 반환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어 범죄발생과 사고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될 때 충청북도가 영동군으로 반환하는 것은 5만여 영동군민과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 가치입니다.

최초의 약속대로 (구)영동소방서 건물과 부지를 5만 여 영동군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박우양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창조적 광역발전 위한 삼도봉 발전 방안 촉구'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삼도봉에서 매년 10월 10일 3개 시·군이 삼도화합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를 격상하여 명실공히 삼

도화합 축제가 되고 이를 통해 충청북도가 영충호 시대의 리더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삼도봉 화합길·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첫째, 삼도봉 권역에 잠재된 자연생태자원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둘째, 지역간 연계·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가능성에 대한 확산 공유 및 자원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셋째, 천연생태 자원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트렌드에 맞는 자연경관 보존 및 개선으로 삼도권역만의 특성화 정립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이러한 선제적 역할을 통해 충북경제 4%를 조기달성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영충호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시종 도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숙애 의원
(교육위원회)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조치 근본적 대책 요구

저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사후조치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

원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충북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근절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구성이 필요합니다.

둘째, 아동학대예방 통합교육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 및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에 아동학대의 대응지침 및 매뉴얼을 보급하여 아동 학대 발생 시 신속히 대응·조치해야 합니다.

다섯째, 아동학대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사례의 조기발견 및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여섯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책으로 보육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5분

자유발언



강현삼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독단적 인사 그만하고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충북도는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적절치 못한 각종 인사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원인은 인사시스템의 사전 검증능력 부족, 보은인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러한 인사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한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있으나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도덕성, 능력,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임용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협약 방식을 통해 투명성 확보 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모든 시·도가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라 하여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투명성 확보와 공직 명분을 세울 수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다시는 독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이시종 도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이양섭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충북경제 4% 실현과 초평호 관광단지 개발을

충북경제 4% 실현과 초평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단지 개발을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초평호는 연간 38만 여명의 중국관광객들이 입국하는 청주공항으로부터 13km의 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초평호는 중국인들이 성공의 상징으로 신양하는 청룡의 승천모양과 불을 내뿜는 모습 외에도 한반도 지형, 중국 동해안, 만주별판,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의 축소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평호를 관광단지로 개발해 용의 모습을 가진 호수로 스토리텔링화하여 상상의 동물로만 알았던 용의 모습을 직접보고 성공의 기를 받은 물론, 상상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초평호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요우커들에게는 한국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초평호이기 때문에 농다리와 초평호를 중심으로 관광단지를 육성한다면 '창조경제'의 축이 되어 '충북경제 4% 실현'과 궤를 같이하여 충북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를 견인할 동력의 원천이 되어 조기 목표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 될 것입니다.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현안 해결, 지역의 균형발전을 최우선 목표로 도민과 소통하며 신뢰 받는 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1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가는 선진의정 실현

➡

2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

기대사항

-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정운영
- 의정역량 강화 통한 생산적 의회 구현
-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
- 도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홍보
- 의정활동 지원 역량증진 및 시기인적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





▲ 1월 28일 이언구 의장, 이양섭 산업경제위원장, 장선배 의원이 이시중 도지사와 함께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중국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건설소방위원회는 2월 2일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고 도로보수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행정문화위원회는 2월 10일 제12회 장애인동계체전이 열리는 서울 동천빙상경기장을 방문해 대표단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2월 3일 청주공항 현지를 방문해 청주공항 활성화 및 MRO사업 추진상황 등을 보고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 정책복지위원회는 1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시설 등을 점검했다.



▲ 2월 7일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이시종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상당산성에서 함께 산행하며 의호와 집행부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스킨십을 강화했다.



▲ 2월 8일 이언구 의장과 이의영 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시 옥산노인요양원과 효부마을복지원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 2월 9일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이시종 도지사와 함께 오송VC센터에서 열린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이전 개청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2월 16일 이언구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설을 앞두고 재래시장 활성화 및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으로 청주시 북부시장 찾아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다.



▲ 2월 3일 오송역사에서 실시된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오송역 활성화 촉구 충북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서대전역 경유 반대와 오송역 활성화를 요구했다.

봄철 무리한 운동, 잘못하면 어깨 통증



관절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회전근개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운동 범위를 가지는 관절로 가장 안정적인 관절인 엉덩이 관절과 대비된다.

엉덩이 관절은 골 구조가 오목하고 요철이 잘 맞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관절인 반면, 어깨 관절은 평평한 접시 위에 동그란 공이 얹힌 모양으로 모습 자체도 상당히 불안정하다. 이 때문에 관절 주변부 골격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섬유연골 조직인 관절와순이 형성되어 있다. 관절 외부에는 회전근개라는 근육들이 주변부를 감싸 안정성을 높이고 동시에 관절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어깨 관절에서 관절와순이나 회전

근개 파열 등이 주로 발생한다. 관절와순 파열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손상이 원인으로 젊은층에게 흔하며,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퇴행성 변화 및 외상이 원인으로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한다.

관절와순이나 회전근개의 파열이 있을 때는 어깨 통증이 생기고, 팔을 움직이면 증상이 악화된다. 관절와순 파열이 있을 때에는 어깨를 비틀거나 어깨를 이용한 공 던지기 동작시 통증이 심해진다. 특히 운동한 후 며칠은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에는 어깨 통증과 함께 팔을 들기가 어렵고, 특히 밤에 잠을 자다가 어깨 통증으로 잠을 깨는 것이 특징이다.



운동 전 · 후 스트레칭은 필수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 및 병력을 확인하고, 정형외과 전문의의 세심한 진찰이 필요하다. 또 단순 방사선 사진(X-ray) 및 필요한 경우 MRI를 시행한다. 회전근개 파열은 MRI에서 감별되는 경우가 많지만, 관절와순 파열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MRI만으로는 감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진찰 소견과 같이 고려하는 것이 좋다.

치료로는 보존적 치료(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황이나 욕구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증상이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활동에 대한 욕구도 높지 않거나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보존적 치료인 약물·물리치료·국소 주사 요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큰 상처가 남지 않아 미용적으로 우수하고, 연부조직 유착이 적으며 회복이 빨라 재활 치료에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봄철 의욕만 앞선 무리한 운동은 자칫 신체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전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풀어주고 운동을 마친 후에도 부드러운 스트레칭 등으로 정리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메디체크〉



백희귀 내과전문의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세종지부)



「사실증명」 자치단체 발급개시

(2015.2.5. 현재, 16종)

2015년 2월 5일부터 가까운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신고 사실 없음” 및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사실증명을 신청하여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시행일자** : 2015. 2. 5.(목)
 - **대상증명** : 사실증명 2유형
 - ① 신고사실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고 근로(사업)소득으로 연말 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증명
 - ②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 개인이 사업자등록 한 사실이 없음에 대한 증명
 - **신청장소** :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발급수수료** : 무료
 - **처리시간** : 접수 후 3시간(점심시간 제외) 이내
- ※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세 민원증명

민원증명 종류	서비스 대상
사업자등록 증명	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	개인, 법인
폐업사실증명	개인, 법인
납세증명서	개인, 법인
납세사실증명서	개인, 법인
소득금액증명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개인, 법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 · 세액공제확인서	개인
모범납세자증명	개인, 법인
소득금액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개인
소득금액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개인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개인

「학원 등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그동안 「학원 등 사업자」가 폐업(원)을 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원 등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과 교육부는 정부3.0 협업강화 차원에서 폐업(원)신고를 할 때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나 교육지원청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한자리(원스톱)에서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 **대 상 자**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및 신고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시 행 일** : 2015. 1. 12. 전국시행

■ 준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본인(법인인은 대표이사)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학원 등 등록 · 신고증 원본
대리인	①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② 위임장 ③ 사업자등록증, 학원 등 등록 · 신고증 원본

● 학원 설립 · 운영등록증,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 유의사항

- ① 현재 등록 · 신고 된 가까운 관할 세무서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학원 등 등록 · 신고증 원본 미지참, 신고서 접수일과 폐업(폐원, 폐소)일의 차이가 1개월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교육지원청의 행정처분(과태료부 등)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동청주세무서〉



“기초의회 폐지? 과연 바람직한가?”



김영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지난 1월 28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종합계획 설명회 중단 및 전면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재정자립도가 31%로 추락한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 채 구청장 임명제나 독자적인 과세권한을 없애려는 계획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이 기초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진 이유에는 얼마 전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구청장 임명제와 기초의회 폐지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30년 만에 부활했으며, 이제 민선자치 20년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고도 치고, 그래서 부모의 지도와 보호하에 있는 것이 아닌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자립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시기이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지방의회가 기반을 더 튼튼히 다질 수 있는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나중에는 시스템으로 정착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마치 영원한 잘못인양 낙인찍어 지방자치 그 자체를 역행하려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지방의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대는 그

리스시대처럼 모든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 일을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두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에 있어 지방의회제도는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절대적인 강시장-약 의회 구조에서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약 견제와 감시를 하는 지방의회를 없앤다면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회가 모든 주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일부 특정단체의 해결사 정도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의회를 아예 없애자는 발상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분권을 실현하는 장치이며 분권이 더 나아가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분권도,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인한 균형발전도 요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폐지하자는 것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고사시키는 것이다.

지방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방의회가 보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정비하여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재정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일본의 유바라시처럼 파산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당공천제, 원구성 등 지방의회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60만 충북도민 역량 결집해 4% 충북경제 실현하자!



이양섭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청양의 해가 밝은지 2개월이 넘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삼삼 오오 직장인들이 모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내외 뉴스에 대해 한해를 조망하는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필자도 올 한해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청·장년뿐만 아니라 중·노년 계층에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경험과 기술을 집약시켜 성장 동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이시종 도지사는 올해 충북도 주요 도정 보고에서 “160만 도민의 저력으로 충북경제 4% 실현의 원년이 되도록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고 밝히며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뷰티, 유기농, 정보통신융복합, 공항 및 항공정비 등 신성장 6대 전략산업을 충북형 창조경제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최근 국가경제의 중심축이 충북을 포함한 충청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신수도권 시대가 도래되어 충청권이 이제 새로운 수도권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도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도는 신성장 동력의 핵심지대로 부상하고 있는데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경제자유구역,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국가 신성장 산업이 밀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청주국제공항과 유일한 KTX 오송분기점, 남북4축과 동서3축 고속도로가 도내 전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충북은 수도권에서 1시간,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청주시의 출범으로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재탄생했고 2013년 말 기준 충북 경제는 전년대비 광공업 생산증가율 전국 1위(7.6%), 수출증가율 전국 2위(14.1% 증가), 취업자 수 증가율 전국 4위(3.2% 증가), 소비(대형 소매점 판매) 증가율 전국 1위(12.2% 증가)를 달성하는 지표를 보이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러한 지표를 적극 활용해 전국 대비 3%대의 벽에 갇혀있던 경제수준(GRDP기준)을 4%대로 끌어올리려는 도전적인 목표를 과감하게 제시·시행하며 진정한 영충호시대의 리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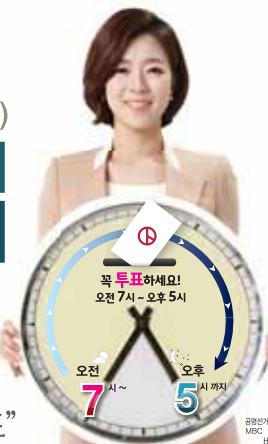
즉, 충북경제 4%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을 향상시키고, 유기농·MRO산업과 같은 6대 성장동력 전략산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충북창조경제 혁신을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및 성장동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지속적인 핵심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내 경제단체, 기업, 160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

**2015년 3월 11일(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투표안내문 참조,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 농업 수협 산림조합

“충북도의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 인터넷생중계 : <http://assembtv.cb21.net> ● 트위터 : <http://twitter.com/#!/chungbuk/assem>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cbassembly>

| 청원안내 |

■ 청원서 제출방법

- 도의회에 청원을 하려면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성명기재,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원서 제출사항

-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표시
-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구제 요구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조례, 규칙 제·개정 등 자치단체 소관업무 등

■ 청원서 문의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4

| 민원안내 |

■ 진정서 등 제출

- 진정민원은 진정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의견서 등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함
- 진정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진정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민원제출방법

- 우편민원 : 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의사담당관실
- 인터넷 : <http://assem.cb21.net>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 전 화 : 043) 220-5154
- 팩 스 : 043) 220-5159

| 방청안내 |

■ 방청권 교부

- 방청권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 방청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사항 준수

■ 방청권 신청

- 의사담당관실 : 043) 220-5155



충청북도의회
<http://assem.cb21.net>